

#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전국이 주목

## 대통령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서 벤치마킹 이인호 부의장 “고령화시대 돌봄정책 혁신모델” 평가

광주시에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인호 부의장과 민

생 경제 분과 위원들이 초고령사회에 지속할 수 있는 돌봄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민생 경제 ▲거시 금융 ▲혁신 경제 ▲미래 경제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민생 경제 분과는 복지·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주거·재난 관리 등 국민 생활 안정 분야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적 실행 주제인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과 함께 거동이 불

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의 ‘방문진료’ 현장에 동행했다. 자문회의는 기존 돌봄제도가 갖는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달 체계에 주목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인간 존엄을 잃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삶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야말로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돌봄 시스템의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부산·대전 등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 등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강릉시와 4월 초 진

주시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오는 5월 충북도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 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 등 연구자들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 돌봄 정책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사태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를 찾아 클라이언트(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방안과 실행 체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 다. /박성강기자



서해 상공서 한미 편대비행 한미공군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최대규모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전북 군산기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서해 상공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 F-35B 스텔스기, 한국 공군 F-16 등 한미 전투기. (공군 제공)

## 의사협회, 의대 자율 증원안 ‘거부’

### 비대위 “대통령, 원점 재논의 결단”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중 첫 회의가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

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 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걸 지속해서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광주시는 21일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31.7%에 달했다.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0.1%)을 꼽았다. /박성강기자

## 전남도, 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 광주시·전북도와 공동 ‘노지농업 스마트 솔루션’ 개발 농가 인구 감소·고령화 한계 극복 등 농산업 혁신 기대

전남도는 22일 “호남권 3개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28억원(국비 284억원·지방비 1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초광역 협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2028년까지 5년간 광주시, 전북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9

개 기관과 함께 지능형 농업 실증 및 고도화, 지능형 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기계 스마트화(원격자율작업), 최적 생육 및 환경 관리(노지정밀농업), 지능형 농업 데이터 수집 및 제어(관제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공급함으로써 농산업 경쟁력 고도화가 기대된다. 추진 사업은 ▲인공지능 자율작업 관제체계 실증 ▲인공지능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이다. 나주에 조성 중인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이미 구축된 노지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노지 작물 최적화 생육 관련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실증(관수·시비, 생육진단·지도, 병해충 및 품질진단 판별 등) ▲인공지능 융합 농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개발된 인공지능 솔루션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사업은 전남의 주력 산업인 농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통한 무인화, 지능화로 농가 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농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선도하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농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 김영록 지사, 덴마크·독일 순방

### 해상풍력 터빈공장 투자 협약·관광설명회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지난 20일 해상풍력산업 진흥과 관광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6박7일 일정으로 덴마크·독일 순방길에 올랐다. 주요 순방지는 덴마크 코펜하겐·오덴세, 독일 함부르크·베를린이다. 덴마크는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방 첫 일정인 22일(현지 시각)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 머스크, 목포시와 함께 해상풍력 터빈공장 투자협약(MOA)을 할 계획이다. 22일에는 오덴세에 있는 스마트 항만과 베스타스의 터빈 공장을 방문하고 24일엔 덴마크 클럽레포에 위치한 SBS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찰한다. 이어 25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하는 전남도 관광설명회에 참석한다. 관광설명회에는 현지 여행업계 및 언론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해상풍력 산업은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인 만큼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을 하겠다”며 “전남의 해상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1)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2)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3)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용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장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